

GM공장 폐쇄 군산 경제 좌초 위기

공장 인근 상가 잇단 폐업...부동산 매매 건수도 하락 정부 지원·공장 재가동 등 대량실직·인구유출 막아야

전북과 군산경제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강력한 연타'를 맞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사회 바람과는 달리 지난 31일자로 한국GM 군산공장이 결국 문을 닫음을 따라 군산 등 지역경제에 대량실직과 상권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산공장에 의존해 온 지역 부품·협력업체는 가동률이 급락했고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곳이 속출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경제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실직자 양산과 인구 감소, 내수 부진, 상권 추락 등으로 이어져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군산공장 2000여명, 부품·협력업체 135곳에 1만3000여명이 근무해 지역 고용 비중의 20%가량을 차지했다. 가족과 지인을

합하면 무려 4만명 이상이어서 그들의 생계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GM 군산공장은 1996년 첫 가동 후 많게는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50%가량(2011년 기준)을 도맡았다.

공장 폐쇄로 군산지역 총생산액의 16%(2조3000억원)가 감소하고, 군산조선소까지 포함하면 제조업 종사자 47%가량이 실직위험에 처할 수 있다.

군산조선소와 군산공장에 인접한 오식도동은 상가, 원룸, 상업시설 곳곳에 임대와 매매 문구가 나붙었다.

원룸은 70%가량이 비고 식당은 손님이 줄어 20% 이상이 폐업하고 상가 빈 곳은 장기간 임대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내 영동상가도 100여 곳 가운데 40여 곳이 비었고 나머지는 매출이 바닥을 맴돈다. 토지 거래 건수와 아파트 매매가는 2016년 말부터 하락하고, 지난 3월 기준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날인 지난 31일 군산시 한 음식점에 임대 문구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로 아파트 미분양률이 17%에 달했다.

군산시는 근로자 실직과 협력업체 도산이 대량 실직, 타 산업 악영향, 내수 부진, 상권 추락,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 붕괴를 우려한다.

군산경제 위기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급기야 지난 4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효과

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역사회는 공장 매각과 위탁물량 생산, 타 용도 활용 등을 통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군산공장은 별다른 활용계획이 끝내 제시되지 못한 채 가동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군산=박익성 기자 nogusu@연합뉴스

고창 람사르습지 '6월 가볼만한 곳' 선정

법정 보호 생물 864종 서식 생태탐방·힐링체험지 각광

고창군은 윤곡람사르습지가 한국관광공사의 '6월 가 볼 만한 곳'에 선정됐고 지난 31일 밝혔다.

람사르습지는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지닌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고창군 아산면 윤곡리 일원에 있는 윤곡람사르습지는 습지를 개간해서 사용했던 계산식 논이 폐경작지로 30년 넘게 유지되면서 자연적으로 산지 저층습지와 소택지 등의 습지원형으로 복원과정을 거쳐 생태가 살아났다.

생물다양성이 높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희귀종의 생태적 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높은 윤곡람사르습지에는 법정 보호종인 수달, 황새, 삿, 담비를 포함한 총 864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윤곡습지는 지난 2011년 3월 국가습

지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 됐으며 같은 해 4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또 지난 2014년에는 환경부의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아 지질·생태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윤곡람사르습지는 힐링체험에 나서는 여행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인근에 세계유산 등재 고창고인돌유적과 고인돌박물관 탐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고창군은 윤곡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윤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의와 함께 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습지 생태계 서비스 강화 및 다양성 증진을 통해 사계절 내내 생태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윤곡람사르습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6월 가 볼 만한 곳으로는 고창윤곡람사르습지, 인제 대암산 용늪, 태안 두용습지, 무안 갯벌, 제주 1100 고지습지·동백동산 습지, 장녕 우포늪 등이 선정됐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정읍재향군인회 예비 입영자 간담회 호응

군복무 관련 질의응답

정읍시재향군인회(회장 윤재동)는 지난 28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군 입영 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제2회 입영대상자 심리안정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정읍시 태인면과 신대인읍 예비군 지휘관(오세중·전상식)을 강사로 초청 병무행정 안내와 군 복무자세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재동 정읍시재향군인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군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과학대학교 학생들이 정읍시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입영프로그램을 경청하고 있다. <정읍재향군인회 제공>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 다음달 7일 개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인 전북 정읍시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7월 7일 개장한다.

7일과 8일 이틀 동안은 주말에만 문을 열며 이후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피서객을 받는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워터 드롭·터널·바스켓·스프레이·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옥정호와 동진강의 맑은 물을 끌어와 수질이 좋다.

이용료는 어린이 4000원, 청소년 5000원, 어른 6000원이며 신분증을 지참한 정읍시민은 어린이 2000원, 청소년 3000원, 어른 4000원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백암산 일원 '한라새동지란' 개화

"특정지역 서식...희귀식물"

제주에서 주로 자생하는 희귀 부생식물 '한라새동지란' <사진>이 내장산 국립공원 장성 백암산 일원에서 개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백암사무소는 백암산 일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라새동지란' 개화를 확인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백암산 일대에 자생하는 한라새동지란은 공단이 지난 2016년 자원조사 과정에서 처음 발견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백암사무소 측은 "매년 개화 한다는 것

은 내장산이 한라새동지란 서식에 적합한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라새동지란'은 제주도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된 다년생 부생식물로 주변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일부 자생지가 발견되고 있다.

장성민 백암사무소 자원보전 과장은 "한라새동지란은 특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부생식물"이라며 "서식지 보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자원을 적극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아시아롤러선수권대회' 유치 등 스포츠 도시로 뜬다

남원시가 2018 아시아 롤러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등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1일 남원시에 따르면 국내 최고 롤러대회인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대회'를 올해로 10번째 개최하고 있다. 대만에서 개최된 아시아선수권대회는 올해 개최 결정에서 중국 광저우 등 대도시를

겪고 최종 개최지로 낙점됐다. 아시아선수권대회에는 20개국에서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오픈 탁구와 장애인 탁구, 테니스, 배구 등 4개의 전국대회와 유소년 축구, 테니스, 태권도, 복싱 등의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해 스포츠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 오는 10월에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궁도와 테니스(고등부), 레슬링, 인라인 롤러 등 4종목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다질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실외 테니스장 4면을 신축하고 인라인 경기장과 춘향골체육관을 개보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태권도와 스포츠클라이밍, 유소년 축구, 배드민턴 등의 전국대회를 유치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 고원지대와 스포츠시설, 시내권과 연계된 다양한 인프라는 남원을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마케팅을 통한 지방문 유도, 지역축제와 연계한 대회 개최 등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9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사불 원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양학리 대지 1052㎡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신안군 임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연 조용한생활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제일아파트 89㎡ 9층 남향 전망좋은 1억
- 화순 동면 전원주택 땅 706㎡ 2층전원주택 상가주택과교환원 2억6천

투자 · 매도 · 교환

- 보성군 울어면 대지 전·담·과수원 임야 등 21만5천평 2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적합 5000㎡ 법인이전 1억6천
- 무안택부지 화순 도곡면 2008㎡ 위치좋은 6억천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쌍촌동 소방대 대지 118㎡ 상가주택 적합 1억5천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니로도부근 팬션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충장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월산동 양면 소방도점 2층 주거지 873㎡ 12억7천
- 정성읍 수성리 신99503㎡ 공사가 1억8천 매도 3억2천
- 나주 남평 드림강변 27347㎡ 유리온실 등 적합 23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층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 해남 신이면 금송리 대지 17518㎡ 주택있고 방장·식당 등 적합 13억

상가건물

- 유동 모델 대지 127 건평 297 객실 28 감정 11억3천 7억6천
- 수기동 사거리 대지 152㎡ 3층 상가주택 292㎡ 4억2천
- 남구 서동 3층 상가주택 대지 156㎡ 건평 233㎡ 2억3천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9억
- 북동 5층건물 대지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충장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양동 모델·카페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좋은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남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